

슬퍼하지 말아라¹⁾²⁾

슬퍼하지 말아라, 저쪽에서 보면 이 길도 우회로이다.
거미처럼 한 번에 툭 떨어져 빙빙 돌아도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잠시 보편적 추락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떨어
져내린 곳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슬픔의 안내자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저쪽에서도 여기를 볼 수가 없다. 여
기서도 여기를 잘 알 수 없다. 휘파람을 불며 여기를 떠나
려는데 좁은 오솔길도 벗어나지 못해 허둥거린다고 슬퍼하
지 말아라. 우리가 들고 있는 선물꾸러미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잠시 슬
픈 표정을 짓는 것이다. 기우뚱하며 이미 화살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장난으로 쏜 화살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와버렸다고, 오늘밤은 화살 옆에서 잠들어야 한다
고 슬퍼하지 말아라.

1)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1995). 세계사. (2020년 문학동네 복간본)

2) 필사자 주. 도종환-「흔들리며 피는 꽃」참고.

페인트칠³⁾

한 남자가 담벼락을 페인트칠하고 있다. 붓을 들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오가며 손을 놀려댄다. 붓이 닿는 순간 담벼락은 무너진다. 푸르게 검게 또 푸르게 무너진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날아다닐수록 유폐의 경계는 분명해진다. 새가 하늘을 통과할 때 새는 하늘을 가둔다. 하늘은 새의 날개를 가져간다.

그 남자는 낙담한다. 그가 붓을 떼자마자 페인트칠은 간 곳 없다. 거대한 담벼락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3) 『왜가리는 왜가리놀이를 한다』(1998). 세계사. (2015년 문학과지성사 복간본)

나무는 도끼를 삼켰다⁴⁾

자신을 찍으려는 도끼가 왔을 때
나무는 도끼를 삼켰다.
도끼로부터 도망가다가 도끼를 삼켰다.

폭풍우 몰아치던 밤
나무는 번개를 삼켰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더 깊이 찢리는 번개를 삼켰다.

4) 『붉은 담장의 커브』(2001). 민음사.

떡이⁵⁾

줄에 매여
개가 접시를 훔고 있다.
접시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반짝이다 깨어지는지

그의 혀가 얼마나 긴지
그 혀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핥고
줄을 잡고 있는
내 얼굴을 훔고 지나갔다.

5)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2004). 문학과지성사.

밤의 후렴구⁶⁾

밤이 나를 들고 있다. 나는 들려 있다. 밤이 나를 꺼낸 것이다. 나는 꺼내져 있다. 나는 밤의 후렴구, 조금 넓게 밤 속에 펼쳐져 있다. 밤이 나아간다. 나를 들고 나를 어깨에 둘러메고 허공에 나를 묻히며 걸어간다. 나를 들이대곤 어딘가 위협을 한다. 나를 앞세워 지나간다. 후렴이 너무 커요, 나는 한숨을 쉰다. 나는 흥기이지 흥기를 든 자는 아니다. 후렴에서 만나자. 후렴에서 나는 잠에 빠진다. 밤이 나를 들고 가는 동안 밤이 잠에 빠진다. 밤이 나를 들고 겨누어대는 세계도 같이 잠에 빠진다.

6)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2011). 문학과지성사.

털실 따라 하기⁷⁾

이 털실은 부드럽다. 이 폭설은 따뜻하다. 이 털실은 누가 던졌기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털실로 뭐 할까 물고기는 물고기를 멈추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끌고 가고 끌려가고 이 털실은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이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 폭설은 소원을 이룬다. 폭설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털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털실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아무 형체도 짓지 않습니다. 이 털실은 집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 별은 풀린다. 이 털실은 풀린다. 끝없이 풀리기만 한다. 이 털실은 화해하지 않는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털실 뭉치를 달고 다닌다.

7) 『마치』(2014). 문학과지성사.

물류창고⁸⁾

창고를 보았을 때 바로 힐링캠프가 열리는 곳임을 알았다.

그것은 중앙 광장에 보란 듯이 세워져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며칠 전에 특별 행사로 한 것 같은 시즌 오프 세일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다예요 창고 완전 개방입니다
외치는 소리 시끄러웠을 일주일만 아마 지나갔고
지금은 캠프를 신청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명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그 옆에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우리는 무얼 할지 몰라 둘러보다가 공예보다는
연극이 쉬울 것 같아 즉석에서
연극을 신청했는데
한 팀밖에 구성할 수 없다 하여 경훈과 성미가
다른 그룹의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경훈이 먼저 무대에 올라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캠프 시작에 늦지 않으려 했는데 오는
길이 막혔고 그런데 자신은 여기에 왜 오는지 모르며
그냥

이끌려 왔는데 뭘 또 하라고 하니 우선 늦어서 미안하다는 거였다. 날이 더워서

더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그때 다른 그룹의 사람 둘이
나와서 자신들은 이 지역 주민이라

할인된 가격으로 캠프에 참가했고

진정한 나를 찾는 힐링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작정한 듯
소리 지르고 바닥에 넘어졌다가

나중에는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경훈은 두 사람

8) 『물류창고』(2018). 문학과지성사. p.22

이

힐링을 잘 하도록 비켜주었는데 두 사람이

힐링을 너무 오래 해서 성미는 두 사람을

결국 이해하고 힐링을 이해하고

힐링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성미가 감동의
눈물을

터뜨렸을 때 두 사람 중 좀 뚱뚱한 사람이

덕분에 자신도 힐링되었다며 성미의 손을 잡고

무대를 한 바퀴 돌았다. 하는 수 없이 경훈은 그 나머지
사람에게

다가가 오늘은 몹시 더운 날이라 했다. 더러운 날이라
했다.

그리고 또 늦어서 미안하다 했다. 한 번 더 미안하다고
했다. 험령한

웃을 입은 경훈은 말을 마치고 객석에 앉은 나를 잠시
바라보았는데

내가 부채질을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더운 날이라 했다.

창고에는 중간 크기의 붉은 소화기가 한 대

구석에 놓여 있는 게 전부였다.

안전핀을 뽑아서 노즐을 어떻게 끌고 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거기 더러운 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네 사람이 가까이 멀리 그 소화기를
지나치곤 했다. 무대 위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커다랗게 보였다.

도시가스⁹⁾

썩은 광장을 따라 걸었지

썩은 낙엽 썩은 사과가 굴러다니고

게임을 난 할 줄 모르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너는 말한다. 나는 배워야 한다. 두드
리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을 그래,
각오를 다진다.

장갑을 벗고 흰 장갑을 벗고 장갑을 치우고 손을 치우
고 배워야 한다.

바닥에 한 사람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다. 몇 장은 둥근 맨홀 뚜껑으로 굴러가서 텅
군다.

맨홀 뚜껑에는 도시가스라 씌어져 있다. 뚜껑을 열지는
않는다.

가스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스가 있다. 가스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게가 없고 가스는 소리가 없고 보이
지도 않고 그러나 가스는 부드럽고 가스는 온화하고 가스
는 은은하게 순조롭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가스는 우리
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가스로 가득 차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건 필요 없다. 산책길에 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용없다. 해는 우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빨리 떨어지고

9) 『도시가스』(2022). 문학과지성사. p.24

저기 광장의 끝이 벌써 보인다. 끝을 향해 제대로 나 있는 길 반듯한 길을 따라 걷는다. 썩은 광장에 당신은 서 있어요 입에서는 태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는 반듯한 이마를 들고 이번에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화면을 두드리지 말라고 썩은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 나온 게임을 배우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식 인사¹⁰⁾

셔틀콕이 나무에 걸렸다.
우리는 배드민턴 채를 내려놓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셔틀콕인데 지금 나무에 꼼짝없이
걸려버렸다.
왜 날마다 배드민턴을 쳤는지 모르겠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주고받으며 뛰어다녔는지
이야기는 이빨 자국을 내고
우리는 이빨 자국에서 계속 도망치는 것 같았다.
하늘 높이 셔틀콕이 날아가고
에티오피아까지 그것이 날아갔다가 돌아와도 모르고
똑바로 날지 못하고 나무에 걸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가 나무를 여기 불러 세웠니 난 아냐 따지면서
영문을 모르는 배드민턴 채들을 호출해대기 시작했다.
배드민턴을 배우느라고 우리는 노년이 와도 몰랐다.
남들은 금방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해 허둥대고
다른 사람의 배드민턴 채를 멀리 던져버리기만 했다.
다정한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끼리 배드민턴을 치고
얼마나 멋지게 배드민턴과 결합하는지
우리는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배드민턴을 끝내는지 알
길이 없었다.
셔틀콕이 똑딱거리며 계속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악몽
을 꾸었다.
악몽을 피해 배드민턴 채를 흔들어대며
가까스로 떠밀려가지 않고 이상한 원을 그리며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네가 나무를 여기 불러 세웠니 난 아냐 따지면서
물러설 줄 모르고 나무 밑을 빙빙 돌았다.
셔틀콕이 떨어지면 줍기 위해 벌써 허리를 구부렸는데
그것은 에티오피아에서 반가울 때 하는 의례적 인사였다.

10) 『도시가스』(2022). 문학과지성사.